

농진청, 돼지콜레라 주의보 발령

농촌진흥청은 4월 14일 돼지 콜레라 및 닭 뉴캐슬병 주의보를 발령했다.
다음은 돼지 콜레라 주의보 발령 내용이다.

환절기를 맞아 최근 돼지콜레라 및 닭 뉴캐슬병이 지역에 따라 이미 발생되고 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어 4월 14일자로 주의보를 발령하오니, 양축 농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돼지, 닭 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 콜레라

지난해에도 봄철에 들어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1월부터 경기, 충남, 전북, 경남, 강원 일부지역에서 산발적으로 9건에 445두가 발생하고 있고 봄철 번식기를 맞아 더욱 크게 퍼질 것이 우려되니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주요증상

-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모든 돼지는 일령에 관계없이 발병하고 7-21일 사이에 거의 죽는다.
- 체온이 40~41°C로 오르고 몇일이 지나 죽는 급성의 경우와 열이 일정치 않고 20~30일이 지나 죽는 만성적 경우도 있다.
- 처음에 열이나며 사료를 먹지않고 곱이 섞인 굳은똥을 놓다가 냄새가 심한 설사를 한다.
- 눈이 충혈되고 눈꼽이 끼며 기침과 구토를 종종한다.
- 몸에는 붉은 얼룩무늬가 생기고 뒷다리를 잘못 쓰고 비틀거리며 심한 호흡곤란을 일으키어 죽게된다.

2. 예방조치

- 새끼돼지를 시장이나 돼지 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돼지기르는 농가에서 구입하여 2~3주간 따라 기르면서 예방주사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한다.
- 돼지우리와 그 주변은 가성소다등 강력한 소독약으로 계속 소독하고 외부인의 돈사내 출입을 제한한다.

3. 예방주사

- 가까운 양돈농가에 발생되고 있을때 (긴급할때) - 분만후 첫젖을 먹기전 새끼돼지에 주사
- 가까운 양돈 농가에 발생이 없을때 - 생후 30~40일령에 1차
- 생후 50~60일령에 2차 } 두번 주사
- 번식용 어미돼지- 접붙이기 2~4주전에 1회주사
- 주사는 어미돼지와 새끼돼지 구분없이 모두 귀뒷부분 피하나 뒷다리 근육내에 1ml를 놓는다.

4. 농수산부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을 돼지 콜레라 일제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니 돼지기르는 농가에서는 빠짐없이 예방주사를 실시해야 한다.